

전북교육청, 올 첫 추경 증액 편성

본예산 대비 1506억 증가한 4조7238억원 규모
10대 핵심과제 추진·학생안전 강화에 중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본예산 대비 1,506억원 증가한 4조7,238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1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1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를 밝히면서,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학력신장과 책임교육 실현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늘봄 지킴이 운영,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 등 학생안전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공간 조성 지원, 전북형 AI 서비스 구축 등 수업혁신에 실험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독서 생활화로 지적 능력 향상과 인문학적 소양을 제고하기 위한 독서·인문 교육에 62억원을 투자한다. 아침 10분 독서 지원 학교를 80개교, 미래형 도서관 공간혁신 사업 지원 학교를 30개교 더 확대하고, 내 고장 바로알기 독서·인문 교육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수업혁신을 통한 학력신장과 학생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과 학습 프로그램에는 95억원을 편성했다. 전북형 AI서비스 구축에 50억원, 에듀테크 활용 수업혁신 지원에 6억원, 중위권 교과보충 프로그램 운영에 10억원, 초등 과정중심 평가 운영에 1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학생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내실화 및 존중과 배려의 문화 다양성 교육 실현을 위한 다문화 교육에는 19억원을 편성했다. 특수교육 지원 봉사자 확대 운영에 7억원, 놀이공간 지원 사업에 7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한국어 1:1 집중교육 3억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1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학교 안전관리 강화 대책 예산 20억원도 추가로 편성했다. 늘봄학교 학생의 안전한 하교 지원을 위한 늘봄 지킴이 운영 2억원, 학교 내 CCTV 설치 지원 3억원,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교사의 책임 부담 완화와 학생 안전을 위한 보조인력 운영 지원 3억원 등이다.

끝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는 879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 환경 개선



1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상곤 예산과장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설명하고 있다.

270억원,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확충 163억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 23억원, 특성화고 여건 개선에 156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보통교 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05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1억원 △자체수입 및 기타 20억원을 재원으로 하고, 부족한 세입 재원 980억원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330억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650억원을 활용

했다.

이날 제출된 예산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5월 7일 확정된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올해 핵심과제인 학력신장과 책임교육의 안정적인 이행과 학교안전 강화에 중점을 뒀다"며 "원만한 예산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가 DH그룹과 산학연구 추진단을 발족했다.

국립대·글로벌 기업의 만남

전북대-DH그룹, 산학연구 추진단 공식 출범
제어기 회로 설계·차세대 모빌리티 분야 협력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DH그룹(회장 이정권)과 산학연구 추진단을 발족,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14일 전북대 본부 2층 대회의실에서 산학연구 추진단 발대식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양오봉 총장과 이정권 회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발대식은 양 기관의 비전 공유와 추진단 활동 계획 발표, 전가 열관리 시스템 개발 현황 보고, MOU 서명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내 최초 제어기 회로 설계와 모터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 보안 기능 개발 및 평가 등을 중심으로 협업을 나가기로 했다. 또한 향후 자율주행 센서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과 스마트 가전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공학과 컴

퓨터 및 인공지능, 융합기술공학, 기계 및 시스템 공학, 산업공학, 소재공학, 빅데이터 분야 발전을 위한 핵심인재 개발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78년 역사의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 우수한 연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DH그룹은 가전 산업뿐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한국의 테슬라를 꿈꾸는 혁신기업"이라며 "이번 산학연구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권 회장은 "DH그룹은 생활 가전을 넘어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 중이며, 이번 전북대와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17일 청렴특강 마련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오는 17일 오후 3시 청렴연수원과 연계한 특별 특강을 마련했다.

15일 전북대에 따르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특강에는 김세진 청렴연수원장이 강사로 나서 '인문학으로 비추보는 청렴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청렴연수원에서 강의료 및 공연료를 전액 지원한다.

이번 특강을 통해 전북대는 학생들에게는 올바른 청렴 가치관 확립을 돕고, 총장 및 보직교수, 교직원들에게는 청렴 역량 강화와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강연 이후에는 충청남도태권도시범공연단이 '부패타파! 청렴태권도!'라는 주제로 역동적인 태권도 공연을 선보인다.

/장은성 기자



15일 강호항공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2025년 군 특성화 과정 합동발대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5년 호남권역 군 특성화고교 합동발대식

강호항공고 등 6개 학교 참여... 군에서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염택선)는 15일 대운동장에서 '2025년 군 특성화 과정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군 특성화고등학교는 군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는 학교로, 강호항공고는 2007년 선정된 이후 올해까지 총 17기수 1,071명의 공군 전문(항공정비)부사관을 양성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강호항공고는 올해 군 특성화고등학교 중앙권역학교(전국 44개 군 특성화고 대표학교)로 선정, 이

날 호남권역 6개 학교의 합동발대식을 주최했다.

호남권역에서는 강호항공고등학교(교장), 금파공업고등학교(광주),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진안), 남원제일고등학교(남원),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임실), 전남미래자동차고등학교(장흥) 등 6개 학교, 148명이 재학중이다.

합동발대식은 경과보고, 학생 결의문 선서, 내빈 환영사 및 격려사, 군 특성화기 수여와 휘장 부착식 순으로 진행됐다.

발대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심덕섭

고창군수, 김중수 제1전투비행단장, 호남지역 군 특성화고등학교 교장단, 학부모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에 학생들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군 간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전문지식과 강인한 체력을 기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서거석 교육감은 "스스로 선택한 여러분의 결단은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지고, 그 어떤 수업보다 귀한 배움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역량을 키우는 국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비전대, 몽골 달란자르가드시와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 협약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14일 본교 대회의실에서 몽골 고비사막주 달란자르가드 시와 국제교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TSOGT DENE EDORJ 달란자르가드 시장을 비롯해 시의회 의원 및 주요 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고, 본교에서는 우병훈 총장과 국제교류원장, 이차전지신산업선도전문대학사업단장, 신재생에너지과 교수진이 함께 했다.

15일 전주비전대에 따르면 2년 전부터 달란자르가드시와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지금까지 총 140여 명의 몽골 청소년 및 전문인력 대상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우호증진과 학술·교육 분야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이차전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몽골 유학생 대상 특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현재 전주비전대학교에는 16개국 836명 유학생(본과 438명, 연수생 398명)이 재학 중이며, 몽골 유학생은 총 7개 학과에서 22명이 전공 교육을 받고 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유학생 지원을 위한 단계별 통합 관리체계인 '더움(THE U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탐구중심 수업으로 교사·학생 주도성 신장

전북교육청,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운영 설명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그랜드벨라홀에서 '2025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의 수업혁신 핵심 브랜드인 개념기반 탐구 수업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초등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교사의 핵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탐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과 역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전북교육청의 혁신 수업 방식이다.

설명회는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운영 안내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이해와 수업 적용 사례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분임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개념 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운영 사례 발표를 나누며 교원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별 분임토의를 통해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올해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 17개교와 실증수업을 강화한 연구학교 4개교 등 총 21개교를 중심으로 개념기반 탐구수업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개념기반 탐구수업 선도학교는 질문과 사고력이 살아나는 수업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주도성을 신장시키는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교원공동체의 연구와 협의가 기반이 되는 수업 중심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 한국표준협회 전북본부와 협약

전주기전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15일 지역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 표준협회 전북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주기전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 대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청년들의 진로·취업 역량강화를 위해 각 기관이 보유한 DB를 공유하기로 했다.

/장은성 기자

우석대, 중국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

한·중 간 교육협력 본격화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중국 청도에 국제캠퍼스를 출범시키며, 한중 간 교육협력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2일 중국 청도국제과학교육원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서창훈 우석학원 이사장과 천웨이 청도 경제기술개발구 투자운영그룹 대표, 요우전시안(由振祥) 청도국제과학교육원장, 슈에푸리(薛福利) 기복산동교육그룹 이사장 등이 참석해 우석대학교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을 축하했다.

우석대학교 청도 국제캠퍼스는 오는 9월부터 인문·자연계열 등에서 약 100명을 대상으로 예비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창훈 이사장은 "청도 국제캠퍼스



출범은 우석대학교가 국제화 시대에 발맞춰 교육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한중 양국 간 인적 교류와 학문적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국 내 유망 교육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